

광주 복구,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 '총력'

동남아 이어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천만달러 계약 성과 문인 청장, "신산업 육성 박차...지역 기업 지원 발굴 확대"

전국 자치단체 대표로 '자생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 복구가 동남아 시장 개척에 이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서 지역 기업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7일 광주시 복구에 따르면 복구 미래 전략산업인 AI(인공지능)와 광융합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구성된 '광융합무역촉진단' (촉진단)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LA와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5박 7일 일정으로 현지 수출 상담회를 열고 바이어 미팅, 기업 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1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실계약 및 약정계약, 미국시장 진출 관련 업무협약(MOU) 2건 등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현장 실·약정계약 규모의 경우 당초 150만 달러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액 325만 달러, 약정계약 675만 달러 등 85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는 게 복구의 설명이다.

이번 미국 방문 광융합무역촉진단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소속 광융합·AI 기업인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복구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실계약 성과 등과 함

께 앞으로 지역 기업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 마련을 위한 자리 등도 꼼꼼히 챙겼다.

복구는 지역 기업들의 장기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벤치마킹, 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며, 항공우주 및 방위, 의료 및 생명과학, 자동차 등 광전자 분야 공급체인 현지 기업(LA 남서부에 있는 OSI Optoelectronics) 회장과의 만남 자리도 주선했다.

미국 OSI Optoelectronics 사의 Manoocher Mansouri 회장은 "광산업은 특정 분야를 짚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응용분야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5G, 6G 등은 강세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특히 복구의 주력 산업인 '드론'은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복구는 또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인 'OKTA LA'와 양국의 수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복구 광융합무역촉진단은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달 26-28일 열린 광통신 산업박람회(OFC)에도 직접 참여해 광융합분야 차세대

기술을 견학하고 현지 바이어를 발굴했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등 세계 65개국 598개 업체, 방문객 1만 4500여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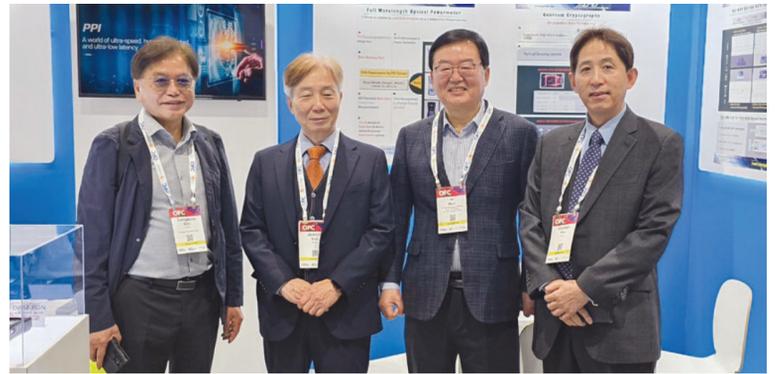
박람회 첫날 문 구청장은 광주 복구 1호 이달의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 기업인 피피아이의 홍보 부스를 방문한 뒤 엔피닉스, 파라포토닉스, 오토마린 등 복구 첨단 소재 기업 부스를 차례로 찾아 격려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복구 소재 AI 4개 기업이 바이어 사전 줌미팅을 진행하는 등 계약 체결의 불교를 트는 성과 등도 이끌어 냈다.

문 구청장은 또 이날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소인 'UC San Diego'를 방문해 국제 R&D 협업 및 스타트업 연계 소개, 산·학·연 파트너십 활용 사례 등을 확인했으며, 복구 AI 기업들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과 공략법 등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직접 동남아 시장 개척에 나서 934만 달러 규모의 지역기업 수출계약 체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처럼 복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초로 촉진단을 운영하고, 4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주 '광(光)산업'의 80%가 밀집해 있기도 한 복구는 올해 들어 광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이자 복구의 주력 산업인 AI 기업을 묶어 '광융합·AI산업'을 동시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 마련



문인(오른쪽 두번째) 광주 복구청장 등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지난달 26일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통신 산업박람회장에서 광주 복구 이달의 기업 1호인 피피아이(PPI) 홍보 부스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민선 7·8기를 이끌고 있는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그동안 '경제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산학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 구청장은 특히 기업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드론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는 등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 조성에도 총

력을 펼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기업 행정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문인 광주 복구청장은 "첫 미국 시장 진출에서 1000만 달러 성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 수출상담 실적과 MOU 체결기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등 기업 지원 행정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LA·샌디에이고 글·사진=김대인 기자 kdi@

광주시,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시동'

호랑꼬두메·양림동·신용동 안전마을협의체 등 3곳 선정 행·재정 지원·전문가 자문...성과 발표·우수사례 공유도

광주시는 "동구 산수2동 호랑꼬두메, 남구 양림동, 북구 신용동 안전마을협의체 등 3곳을 '2024년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돼 삶의 일상 공간인 마을부터 안전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곡1동과 동명동 안전마을협의체 등 2개의 안전마을이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서류심사에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제안서의 주민 참여도, 추진체계, 예산 적절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산수2동 호랑꼬두메 안전마을협의체의 '함께 만들어요! The 안전한 호랑꼬두메 마을만들기' ▲양림동 주민협의체의 '함께 만들어 가는 양림 안전마을 첫 걸음!' ▲신용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용동 안전마

을 만들기 자율적 방법 모델 구축' 등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선정된 마을별로 각 1800만원씩 지원금을 전달하고 안전분야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취약분야의 안전의제 발굴, 사업실행, 문제해결 등을 하게 된다. 연말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인근마을로 확산 공유한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안전마을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외국인주민 슬기로운 광주생활가이드' 발간

시, 생활법률 등 7개 언어로 제작... '광주가이드' 웹사이트 운영

광주시는 "서투른 한국어와 정보 부족으로 초기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주민 슬기로운 광주생활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광주가이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생활가이드'는 광주소개, 등록과 체류, 생활법률, 한국어교육 안내, 건강과 의료, 임신과 출

산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자치구별 가볼만한 곳, 광주시 보육정책 등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몽골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자국어와 좌·우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 책자 뒷면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책자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찾는 자치구 가족센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 대학교 국제교류협력처 등에 비치하고, 광주시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상한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주민 슬기로운 광주생활 가이드'가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전자신고·우편·방문...제조·건설·수출 중기 3개월 연장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시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인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대상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제조·건설·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관할 자치구에 별도 신청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농기센터, 농기계임대 토요일 확대 운영

13일~6월 1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매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광산구 평동 용곡분소, 북구 용강동 용강분소, 남구 석정동 석정분소 등

3곳의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66종 612대를 임대해주고 있다.

임대 대상은 광주지역 농업인과 시민, 생산자 단체 등이다. 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1인 1기종에 한해 개인 3일 이내, 단체 4-15일 이내 장기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 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